

## 하박국 강해④ “우매한 질문 - 주께서 옳습니까?”

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5.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6.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17.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이해할 수 없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아도 알겠지만 하박국의 질문은 우매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질문이 우매함에서 시작하지만, 명쾌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매한 질문, 그리고 명쾌한 해답!”**

### 누가 의인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13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악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를 치십니까?”

아직은 하박국에게 깨어질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박국이 자신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판단을 앞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보는 기준이 자신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하박국의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보다는 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악인이 우리를 삼키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히려 되묻지 않겠습니까?  
 “그래 누가 의인인데? 그래 너희가 잘난 게 뭔데?”  
 우리가 명절에 윗놀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도끼개끼이다” “혹은 50보 100보다”  
 그거 긴 안목에서 보면 똑 같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갈대아 민족 이나, 너희 유대 민족이나 동일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여 주셨어도 택함에 합당하게 살지 못함이 죄입니다. 말씀을 받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한, 누구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2001년 불교신문)** 우리나라 국가 주요 직책 100명의 종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독교 42명, 천주교 20명, 불교 9명 무종교 26명, 기타 3명이었다고 합니다. 386세대를 포함한 16대 국회의원 273명 중에 기독교인이 110명으로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현직 교장 학장 총장 중 기독교인은 60%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 추가)** 가장 최근 20대 국회의 경우 오히려 개신교인의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 타종교의 수가 늘었습니다. 개신교 93명(국민일보 집계). 당시 국가 주요 직책의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여전히 개신교가 가장 많다고는 하지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듭니다.

이 세상에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점점 더 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소금을 생각 합니다. 바닷물의 염분이 3%만 되도 썩지 않는다는데 말입니다. 오늘날 이 민족에 기독교인이 20%가 넘어가고 지도층인사 중 기독교인이 가장 많다고 해도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상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지요.  
 저는 겉모습만을 보면서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직책만을 가지고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니' 바로 그 눈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정확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교인이 많아진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 부부가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방향을 조언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조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하는데 자신의 신앙과 직분을 앞세우는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만큼 서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항변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구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한홍 목사가 쓴 『칼과 칼집』이라는 리더십을 다룬 책입니다.

거기에 'Brand Power'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품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츠 승용차는 앞의 마크를 제일 마지막에 붙인다고 합니다. 모든 공정과 기능을 테스트 한 다음에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받기 전에는 벤츠 승용차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부분 부분 잘났다고, 세상보다 낫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의인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아니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아야 우리에게서 **Brand Power**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기준에 서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로렘나무’라는 국민일보의 칼럼에서 읽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100% 선택하면 세상을 100%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세상을 100% 선택하면 하나님을 100% 놓치지만 하나님을 100% 선택하면 세상을 100% 보람 있게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100% 설 때에 세상의 현란한 영광에 유혹되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바알의 현혹적인 눈빛을 피하고 여호와의 든든한 손길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100%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정말 자신의 기준이 얼마나 보잘 것 없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런 악한 사람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1. 모르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의로 인해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하는 답답함 가운데 있으나,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당신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신지요?” -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관계’를 회고하도록 하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언약관계에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겠지요?” - 유다가 비록 바벨론에게 유린당하고 있지만, 완전한 멸망에 이르지는 않겠지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하여 수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강한 의구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는 질문에 대하여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 질문들을 통하여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병원에서 목회 상담을 배우며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이 어려웠던 상담이 있습니다. 12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기다리다 아이를 잃어버린 한 어머니였습니다. 신앙이 있었던 이 여인은 임신 사실을 안 순간부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조심하고 지나왔는데 뜻하지 않게 아이를 유산한 것입니다. 처음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아이를 잃은 산모는 스스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쉬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죽었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여인의 화를 돋우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여인의 상황이 자신이 바라고 기도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결과를 받아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참으로 무섭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 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불평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원망하십시오, 당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욕을 해도 좋습니다. . .”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처지나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감사도 원망도 그 어떤 것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 봅시다,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이기에 서운하고 아픈 것을 말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불경스럽게 내뱉은 말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하박국의 유치한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유치한 질문조차 받아 주실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질문에 원하는 답을 하지 않을 지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이 관계부터가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 2. 경건한 사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했을 때, 자신의 기대했던 응답은 아니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 문제로 야기되는 괴로움으로 인해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불평해도 말입니다. 구체적인 불평의 내용을 보세요.

하박국 1장 14-15절

14.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5.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두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여기에서 '사람'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의 어족'처럼 되었다는 말은 어부의 낚시와 그물에 의해 마구 남획 당하는 물고기들처럼 유다백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사로잡혀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곤충'처럼 되었다는 말은 '기어 다니는 미물'처럼 하찮게 되어서 누가 밟으면 죽을 수 있는 비참한 운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들을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니 더욱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박국 1장 16-17절

16.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17.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이까

16절은 아주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승전의 영예를 스스로의 군사력에 돌렸다는 의미와 함께, 그들의 신 말둑(Marduk)이나 아닷(Adad)에게 돌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보고 계실 겁니까?" 라는 하박국의 항변입니다.

"하나님, 게다가 이로 인하여 그들이 소득이 풍성하여지고요, 소위 말해서 세상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어부가 그물에 가득 걸린 물고기들을 재빨리 비워내고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 같이 그들의 포악함이, 우리를 괴롭힘이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목상하다 보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겠지요.  
경건한 질문은 우리를 경건함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다른 질문이 제기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실하다면, 지금 자신과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당한 일이 아닐까요? 자신에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직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긴 것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상하게 될 때 소망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경건한 생각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오늘 경건한 질문을 안고 새벽에 오른 우리들에게도 하박국과 같은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되었으니. . .